

프랑스 공연예술 탐색 강의
제3주: 로미오와 줄리엣
-증오에서 사랑으로-

Une co-production Gérard Louvin, GLEM et Universal Music

ROMÉO & JULIETTE
de la Haine à l'Amour

The poster features the title 'ROMÉO & JULIETTE' in a large, stylized, orange-red font with a glowing effect. The ampersand is replaced by a heart shape formed by two intertwined, glowing orange-red ribbons. Below the main title, the subtitle 'de la Haine à l'Amour' is written in a smaller, elegant, cursive font. The background is a dark blue, textured surface with two bright white spotlights shining from the top corners, creating a dramatic atmosphere.

로미오와 줄리엣: 증오에서 사랑으로



작곡: 제라르 프레스귀르빅

작사: 제라르 프레스귀르빅

안무: 레다

무대: 레다

주제: 증오에서 죽음을 통해 사랑에 이르는 에로티-

프랑스 뮤지컬 특징

- 프랑스를 비롯한 프랑스어권에서 제작
- 브로드웨이 / 웨스트엔드 작품과 달리 지역성, 작품성 강조
- 1998년 작 <노트르담 드 파리>의 성공으로 프랑스 뮤지컬 인기 절정
- 영미권 뮤지컬과 달리 성악과 안무 분리
- 뮤지컬 반주에 라이브 음악 아닌 녹음된 음악 사용 추세(<레미제라블> 예외)
- 공연 이전, 음원을 먼저 공개하여 대중성 확보, 관객들에게 다가감
- 구체적인 스토리보다 인상적이고 화려한 음악으로 관객과 승부
- 프랑스 3대 뮤지컬로 꼽히는 <십계>, <로미오와 줄리엣>, <노트르담 드 파리>이외에도 <어린 왕자>, <돈 주앙>, <태양 왕> 등

Roméo et Juliette,

De la haine à l'amour

Livret대본	Gérard Presgurvic 음악가 작가 작곡가 연기자
Musique음악	Gérard Presgurvic
Mise en scène연출	Redha(Λήδα)
Chorégraphie안무	Redha
Décors무대장치	Petrika Ionesco
Costumes의상	Dominique Borg
Lumières조명	Antonio de Carvalho
Production제작	Gérard Louvin, GLEM, Universal Music
Première초연	19 janvier 2001, Palais des congrès de Paris
Dernière종연	21 décembre 2002
Langue d'origine원어	Français
Pays d'origine원작 국가	France

Inspiré par William Shakespear Romeo and Juliette

Palais des congrès de Paris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

증오에서 죽음을 통해 사랑으로

- 전형적 원형 기법: 그리스 비극의 전형-나의 잘못 아닌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한 비극적 운명(chance)을 감수)
- 수동적 운명(원수지간)-증오-희생(죽음)-사랑의 완성으로 양가의 전쟁 멈춤. 개인의 희생으로 공동체 베로나의 평화 정착
- 몬테규와 캐플렛 영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아이들 로미오와 줄리엣 자신도 모르는 운명

(수동적 운명을 상징하는 '죽음의 여신' 등장)

국경 없는 공연, 다양한 번역어

재공연의 타이틀, 국가별 버전과 출연진, 언어가 다름

- 2010년 2월~4월, 파리의 팔레 · 드 · 콩그레 극장에서 「**Les enfants de Vérone** 베로나의 어린이들」*아시아 투어 타이틀

- **Vérone, Rome, Canada, Anvers**(안트베르펜), Londres, Amsterdam, Budapest, Szeged, Moscou, Vienne, Bucarest, **Séoul, Pusan**(Corée du Sud), Taipei, Monterrey, Japon, Hong Kong et Shanghai

- le néerlandais, l'italien, le hongrois, le russe, l'anglais, l'allemand, l'espagnol, Roumain, japonais, **coréen**, Portugais, Slovaque

<로미오와 줄리엣> 장르적 특성

-연출의 코딩-

- 말, 춤, 연기의 극대화 (포화 상태의 무대 구성과 출연진들의 제스처)
- 1층과 2층 분화 효과: 최고 9개의 화면 분할 효과
- '스틸steal': 장면을 진행하는 배우에게 가야 할 시선을 빼앗는 행위
- Business: 몸짓, 소도구를 교묘히 사용하는 다양한 동작, 관객의 집중력 분산하는 역효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서문

[서사배우]

다 같이 세도 있는 두 집안이 아름다운 베로나를 무대로 오랫동안 쌓인 원한에서 또 싸움을 일으키니, 시민의 피가 시민의 손을 더럽힌다. 숙명적인 이 두 원수의 집안에서 불운한 한 쌍의 애인이 태어난다. 이 들 불행하고 불우한 사랑의 파멸은 죽음으로써 두 집안의 갈등을 매장한다. 죽음으로 끝을 맺는 두 집안은 이의 가련한 사랑 이야기. 자식들이 죽고서야 화해가 되는 두 집 부모네의 길고 긴 불화, 이것이 지금부터 두어 시간동안 상연됩니다. 여러분, 참고 들어주십시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노력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퇴장)

캐플렛가의 하인 샘슨과 그레고리, 칼과 방패 들고 등장

[그레고리] 우리네 주인은 주인끼리, 하인은 하인끼리의 싸움이 아닌가.

[샘슨] 매한가질세. 난 실컷 횡포 좀 부려 볼 거야. 놈들하고 싸움이 끝나면, 년들도 혼을 좀 내줘야지. 고년들 급소를 찔러 놓고 짓밟을 테야.

[그레고리] 종년들 급소를?

[샘슨] 암, 고년들 급소, 고 처녀막 말야. 자네 맘대로 생각해 두게나.

[그레고리] 맛을 알아야 생각도 나잖나.

[샘슨] 내가 버티고 있는 동안이면, 년들이 맛을 볼 게 아닌가. 이래봐두 어지간한 살덩이거든.

[그레고리] 생선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생선이었다면 자넨 건대구였지 뭐야. 자, 칼을 빼게. 마침 몬타규네 녀석들이 오네.

뛰어난 역설Paradoxe

[로미오] 아니, 이게 웬 소동이었어? 아냐, 말 안 해도 좋아.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미움과 관련된 소동도 소동이지만, 사랑과 관련된 고민은 한술 더 뜨는걸. 싸우는 사랑, 사랑하는 미움이라. 아, 원래 무에서 생겨난 유! 아, 무겁고도 가볍군. 진실한 허위, 겉치레는 근사하나 꼴사나운 혼돈, 납덩이의 솜털, 번쩍이는 연기, 차디찬 불, 병든 건강, 늘 눈떠 있는 잠, 그것 아닌 그것, 이것이 내가 느끼는 사랑이지만, 어디 이런 사랑에 만족이 있어야지. 우습잖나?

위선적 부녀 관계

[캐플렛] 하지만 너무 일찍 되면 쉽게 망치
잖소. 다른 자식들은 다 죽고 이제 그애만이
나의 희망이라오. 어쨌든 백작이 직접 구매
하여 딸년의 마음을 사 보구료. 딸이 승낙하
면 내 의향은 들으나마나고, 딸이 동의하면
나는 개가 택한 대로 승인하고 기꺼이 찬성
할 수밖에도요.

성적 담론

[유모] 벌써 11년 전 일이지만 그때도 아가씨 혼자서 곧잘 서기도 하고, 비틀비틀 걸음마도 하고 다녔지요. 그 전날만 해도 이마에 상처를 냈는데 우리 집사람-하느님, 보호해 주십사, 그 이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지요. '철이 들면 뒤로 넘어질 테지. 안 그러니, 줄리에트 아가?' 하고 말하니까, 글썄 귀여운 것이 울다 말고 '응' 하겠지요. 이제 보니, 농담이 맞는가 봐요! 참말로 내가 천년을 살더라도, 그 말만은 안 잊을 거야. 우리 집 양반이 '안 그래, 줄리에트 아가?' 하고 말하니까, 귀여운 것이 울다 말고 '응.' 하잖겠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로미오] (줄리에트의 손을 붙들고) 천하디천한 이 손으로 이 거룩한 성당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라면, 그 죄의 보상으로 내 입술이 낯을 붉힌 두 순례자처럼 대기하고 섰다가 점잖게 키스하여 그 추한 흔적을 씻고자 하오.

[줄리에트] 착한 순례자님, 그건 당신 손에 너무나 욕이 되어요. 당신 손은 것처럼 점잖게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자의 손은 순례자가 손을 갖다 대자는 것이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대는 것이 거룩한 순례자의 키스가 아닌가요.

[로미오] 성자나 거룩한 순례자에게도 입술이 있잖소.

[줄리에트] 아이 순례자님, 그것은 기도를 올리자는 입술이에요.

[로미오] 아, 그럼 성녀님, 손으로 하는 키스를 입술로 하게 해주세요. 입술이 기원하니 허락해 주시오. 신앙이 절망으로 변하면 안 되니까요.

[줄리에트] 성자의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비록 기원을 들어주는 일은 있더라도.

[로미오] 그럼, 동하지 말고 계시오. 내 기원의 효험을 받으리라, 이렇게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의 죄는 씻어지는구료. (키스한다.)

[줄리에트] 그럼, 제 입술이 그 죄를 짊어지게요.

[로미오] 내 입술에서 죄를? 아, 얼마나 달콤한 꾸짖음인가! 죄를 돌려주오. (키스한다.)

[줄리에트] 키스에도 이유를 붙이시네요.

증오에서 싹튼 사랑

[로미오] 캐플렛 집 딸? 아, 값비싼 거래구나! 내 목숨은 원수의 저당물이 됐구나.

[줄리에트] 단 하나의 내 순정이 단 하나의 내 증오에서 싹트다니! 모르는 동안에 너무 일찍 봐 버렸고, 알고 보니 이미 늦었어! 미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다니, 앞날이 염려되는 사랑의 탄생이구나...

[로미오] 아, 난 운명에게 희롱당하는 바보로구나.

밤꾀꼬리와 나이팅게일

[줄리에트] 벌써 가시려고요? 밝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불안에 떠는 당신의 귀에 들려 오는 저 소리는 종달새가 아니라 밤꾀꼬리 소리예요. 저 밤꾀꼬리는 밤마다 저 석류나무 위에서 노래를 해요. 정말 밤꾀꼬리였어요.

[로미오] 아침을 예고하는 종달새였소. 밤꾀꼬리가 아니었소. 저봐, 저 멀리 동녘 하늘,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저 짓궂은 새벽빛을. 즐거운 아침해는 안개 깊은 산마루에서 발돋움질하고 있소. 난 여기를 떠나 목숨을 건지든가,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든가 할 도리밖에 없어.

아버지의 위선

[캐플렛] 원! 사람 미치겠네. 밤낮 자나깨나 혼 자서나 사람들 속에 끼어서나, 늘 딸년의 혼인만을 걱정해 왔는데 그게 이제 가문 좋고 재산 있고, 교양이 있고, 사람들 말마따나 지덕을 겸비하고 나무랄 데 없이 만사가 구비된 청년을 신랑으로 골라 주니까, 바보같이 분에 넘치는 줄도 모르고, 징징 울면서 결혼이 싫다는 등 핑계를 댄단 말이야. 그래 영 결혼하기 싫다면 용서를 해주겠다. 하나 네 맘대로 나가서 살아라. 이 집에서 같이 살수는 없다. 알았어?

증오의 천벌

[영주] 이 편지를 보니, 그들 사랑의 내력이며 줄리에트의 부고며, 신부의 증언이 틀림이 없군. 또한 로미오가 가난한 약방 영감으로부터 독약을 구해 가지고 이 무덤으로 와서 자살하여 줄리에트와 한 무덤에 매장되려고 한 것도 명백하고. 양편 원수네들은 어디 있소, 캐플렛과 몬타규는? 자, 그대들의 증오에 대해서 어떠한 천벌이 내렸는가 좀 보구료. 결국 당신네들의 기이해야 할 자식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파멸되고 말았잖소! 나도 당신네들의 불화를 등한시하고 있다가 친척을 두 사람이나 말았소. 모두 벌을 받았구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영주] 우울한 평화를 가져오는 아침이군. 태양도 슬퍼서 고개를 들지 않는 구료. 자, 이제 돌아가서 천천히 이 슬픈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소. **세상에 슬픈 얘기도 많지만 이 줄리에트와 로미오의 이야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소.**

1. 서막 ouverture

사랑만이 유일한 고귀함

모든 이야기는 똑같이 시작하지.

달빛 아래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네.

별 하나가 켜지면 또 다른 별 하나가 꺼지기 마련
물론, 비와 우연, 밤과 기타 소리들을 믿을 수는 있지
각자 자신의 언어, 자신의 시선을 지니기 마련이고.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품고 있지.

사람들이 하는 말 따위 듣지 마시오.

사랑만이 고귀한 법,

그토록 열렬히 서로 사랑하리라

그리고, 서서히, 원치 않아도

열정은 추억으로 변해가네.

모든 이야기는 똑같이 시작하지.

달빛 아래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네.

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3. 증오 La haine

사랑과 증오는 자매-양가 부인들

전지한 신이시여, 우리를 보소서 그리고 당신을 보소서
우리 집안에 증오라는 이름의 독이 흐르오
증오, 증오... 당신 영혼 속의 뱀처럼 말이지
증오, 증오... 당신에게 심판을 맡기기는 하지만, 당신을 벌하는
증오, 증오... 나는 당신의 눈에서 증오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오..
증오, 증오... 당신에게 불행을 안기는 증오를 증오하오.
나는 그대에게 혐오감만을 갖고 있을 뿐
왜 이 도시에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해야 하는지
증오...증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증오, 증오... 누가 우리를 그대의 공범자로 만드는지
증오, 증오... 그것은 비겁한 자들이 결여한 용기...
증오, 증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자매...
이 모든 밤들로 나는 그대를 저주하리
그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 밤
쾌락마저 잊은 그대를
중요한 것은 오직 증오뿐...
그대를 들으시오 증오가 그대를 사로 잡으리니
이 빌어먹을 증오는 그대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대를 돌아보시오.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니
단지 증오의 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어떻게 우리가 증오라는 이름 안에서
그토록 많은 범죄와 희생자를 지어내는지
증오... 증오가 그대 영혼 속에 씨를 뿌리러 오네
그러니 귀 기울이시오. 여인들의 목소리에
증오, 증오, 증오

12. 내 잘못 아니지 C'est pas ma faute

그리스 비극 전통-티볼트

우리가 이루어 갈 추억들이야 말로 최고의 아름다움
모든 것이 거짓일 때 어린 시절은 더욱 짜증나
누가 내 것을 훔치고 배반하고
난 증오와 경멸의 아들.

사람들은 내 눈을 가리고 말했지
남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고 나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난 어둠의 감정 속에서 컸지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검고 암울한 그림자

외로워 정말 외로워

외로워 아직도 너무 외로워

내 잘못이 아니지

내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고

지금의 나, 네가 보는 나

내 잘못이 아니지

나는 그들 복수의 산물

15. 사랑으로 Par amour - 로미오

사랑으로 우리는 미쳐버리지
하지만 사랑없인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은 오직 신을 향해
신의의 눈속에만 살아 있어
사랑으로 고통받을 수 있지
사랑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있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해...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해도
사랑은 어둠 속 우리를 이끄는 별
사랑 없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

18. 사랑한다는 것 Aimer-줄리엣

사랑,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 아주 높이 비상하여
새들의 날개를 만져보는 것
사랑,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 시간을 훑치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건 살아 남는 것
그리고 화산 한 가운데서 타오르는 것
사랑,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 그 무엇보다 강하고
우리로부터 최선을 남기는 것
사랑하고 가슴을 느끼고
사랑하면 두려움도 덜하지...

사랑, 대가를 치르는 것
그리고 삶에 의미를 주는 것
사랑, 자신의 밤을 불태우는 것

17. 죄인 coupables – 로미오와 줄리엣

제2막 마지막 넘버

우리 삶은 이제

길 잃은 배에 불과해

왜 아직 살아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죽고 없는데

그리고 신과 인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아이들의 수정 같은 영혼이

우리의 악을 용서하기를

분노한 우리의 신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지르게 한 악(mal)

이제 평화롭게 잠들거라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거라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리라, 우리를 비난하리라

그 애들은 천국에, 우리는 불길에

여기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끝나네

소설과 비교한 뮤지컬

-장르의 현재적 적용과 표현 방법 차이-

- 등장인물 대부분 두 주인공의 비밀 결혼을 알고 있음
- 원작에는 머큐시오와 티볼트의 장례식 없지만 뮤지컬은 가장 성대한 장면(Production Number, 보통은 1막 마지막 막 넘버)으로 처리
- 언어나 상연 지역에 따라 노래나 줄거리, 특히 주인공 두 사람이 죽는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 2010년 영국판 이후 판본에는 몬테규 사망, 부인은 미망인으로 등장
- 통제를 벗어난 운명의 여신 죽음 등장

<로미오와 줄리엣, 증오에서 사랑으로>

- 소설 <카르멘>과 오페라 <카르멘>의 차이와는 달리 대중성에 크게 치중하며 대사를 완화
- '고통 속에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 금기를 따르지 않을 자유, 삶은 연극이 아니라 관습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춤과 노래와 연기로 친근하게 보여줌
- 증오의 비극적 결과를 예견, 배려의 대화로 증오에서 벗어나는 예술적 삶을 느껴보는 계기